

'가인 김병로 선생' 정신 기린다

순창군, '서세 60주기 추모행사' 내달 4일 향토회관에서 개최

대한민국 법조계의 큰 별이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60주기를 맞아 순창군이 뜻깊은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순창군 향토 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순창 이 배출한 법조계의 큰 인물인 김병로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의 법치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1887년 순창 복흥 하리에서 태어난 김병로 선생은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구국운동을 펼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며, 또한 조선 변호사협회 회장, 신간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민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광복 후에는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과 미군정 사법부장을 거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날 행사는 국악 공연으로 시작해 추모식, 추모공연, 학술특강 순으로 진



대한민국 법조계의 큰 별이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서세 60주기를 맞아 순창군이 뜻깊은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행되며, 특히 '나의 독립영웅 가인 김병로'라는 제목의 창작소리극이 공연

돼 선생의 삶과 업적을 예술로 조명할 계획이다.

학술특강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형 전 대법관이 연사로 나서 김병로 선생의 법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그가 남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독립운동가이자 법조인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60주기를 맞아 마련한 이번 추모식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선생님의 애국애족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로 선생은 1967년 퇴임 이후에도 3·15 부정선거 관련 시국수습에 앞장서는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1964년 1월 질병으로 별세할 때까지 법치주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시 · 농촌 균형 발전 도모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추진

임실군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지사면 방계리 609-1번지 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35억원(군비 13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12가구(20평/가구당)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 생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유학은 유학생은 물론 유학생의 가족까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방안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이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현재 인구문제가 대두되는 농촌 지역인 만큼, 유학생 가족까지 인구 유입과 귀농 · 귀촌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며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토석 채취 허가 현장서
민원 · 개선 사항 지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염봉섭)는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원시 관내 토석채취 허가 현장(덕과면, 주생면 일원)에서 채취 관련 민원 및 현장 시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행위 토석 채취 허가와의 관련하여, 허가(협의) 조건에 명시된 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허가 조건인 공사 이전 세류세차시설, 비산방지 및 살수 대책, 진흙입로 도로 폭 확보 규정 등 제반 사항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토석 채취 관련 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반출지인 주생면 일원에 성토 및 농지 복구토 용도로 반입되어야 함에 있어 허가받은 대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현지 감사는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토석 채취, 토취장, 육상골재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통한 건설현장 사업관리 만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기센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장지원단 운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2024년 선정된 청년후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 기간중 7일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이번에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전문가(1명), 선도농업인(1명), 청년·여성농업인(3명)으로 총 5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청년농업인들의 영농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건

의사항 청취와 영농 현황을 파악하여 현장 교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농업인의 의견을 들 어볼 수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사랑상품권' 10억원 규모 추가 발행

임실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을 1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이번 추가 발행은 지역주민들의 소비 촉진과 함께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도모해 왔으며, 이번 발행을 통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임실군이 소요 예산을 전액 부담해 2024년도 마지막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추가 발행된 상품권은 12월 초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기존처럼 1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 등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곳이며, 발행된 상품권은 관내 은행에서 소진 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많은 관심과 호응 덕분에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와 결제가 활발히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계의 부담은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어나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가 발행된 상품권은 12월 초부터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금지 강력 권고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식 난로는 사용이 간편해 실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 겨울철을 맞아 안전관리 일환으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다항목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금지는 비상구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특히 이동식 난로는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중독 사고 위험도가 높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져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며, 남원소방서는 관내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소방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주의 당부

임실소방서는 겨울철 도로 결빙 시 생기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갔을 때 노면이 얇은 빙판처럼 얼어붙는 도로결빙 현상으로써 얼음이 얇고 투명해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지난 27일 임실군 등 전북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강원도에서는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갑작스러운 대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눈이 그친 후에도 빙판길로 인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제동거리 실험에 따르면 시속 50km로 주행 시 승용차는 마른 노면에 비해 빙판길에서 약 4배 가량 제동거리가 증가, 화물차·버스의 경우 약 7배의 제동거리가 증가했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 느린 곡선도로·다리 위·터널의 양 끝 지점 등에서 서행 운전하기, 급출발·급가속·급제동·급회전 삼가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미리 점검하기 등이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